

[일반논문]

## 정희성 시와 소통의 방법

이동순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차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세상과 새롭게 소통하기 |
| 2. 민중의 소박하고 순수한 열정     | 5. 맺음말          |
| 3. 현실의 견고함을 녹이는 따스한 눈길 |                 |

### 1. 들어가는 말

정희성(鄭喜成)은 1945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다. 그는 절제된 감정과 차분한 어조로 우리 시대의 노동 현실과 민중의 정서를 노래해 1970년대 참여시의 한 경향을 대변하는 중견 시인이다. 군 복무시절인 1970년 1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변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데뷔 초기에는 주로 전통적 정서에 바탕을 둔 「바늘귀를 꿰면서」(1970), 「백씨(白氏)의 뺨 1」(1972), 「불망기(不忘記)」(1974), 「얼은 강을 건너며」(1974) 등의 작품을 통해 설화와 향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1974년에 간행된 첫 시집 『답청(踏靑)』에 실린 작품들은 이러한 경향을 띤 초기 시로 사회비판적인 성향보다는 고전적 상상력에 기초한 전야한 시세계를 보여준다.

1978년에 발표한 두 번째 시집 『저문 강에 삼을 씻고』는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구체적 삶의 현장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말을 최대한 억제하며 내적으로 응축된 간결한 시적 진술을 통해 삶의 진실을 토로하고 있는 「저문 강에 삼을 씻고」로 대표되는 그의 시세계는 이런 점에서 이념적 지향성과 시적 감정이 적절히 융해된 시로 평가되며 70년대 후반의 경직화된 민중시에 하나의 반성적 징표가 된다.<sup>1)</sup> 결국 1970년대 현대시의 큰 화두인 참여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적 형식의 자유로움과 감성의 역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세 번째 시집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1991년)를 출간하는데, 두 번째 시집이 나온 지 무려 13년 만의 일이다. 이어 2001년에는 네 번째 시집 『시를 찾아서』를 펴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말을 아끼며 시의 본령을 찾아 나서는 시인의 보다 원숙해진 시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본고는 정희성이 지향하는 시세계를 답과하고 그의 시 전편을 관통하는 창작 정신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견시인이지만 과작의 시인이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sup>2)</sup> 하지만 그의 시세계는 날카로운 시대정신과 단아한 전통적 미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첫 시집 『답청』의 대부분의 시들이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 재수록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시를 찾아서』에 수록된 시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 2. 소박하고 순수한 민중의 열정

석탄은 묻어 있다

1) 최동호, 『한국 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출판부, 2004, p.111.

2) 정희성에 대한 학위 논문으로 조연향, 「정희성 시연구 : 시세계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백천현, 「정희성시연구 :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학술지 기재 논문으로 서익환, 「점액질의 언어 : 정희성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 1994.2, pp.257~276. 구중서, 「말의 완벽주의와 현실 : 정희성이 신작시 5편에 부쳐」, 민족예술 제19집, 1996.9, pp.42~46. 김용락, 「70년대 민중시의 정론성 : 정희성의 시세계」, 문예미학 제9호, 2002.2, pp.111~127. 박남희, 「시대적 윤리의식과 시적자유 : 정희성론」, 불교문에 제9권 3호(통권 24호), 2003 겨울호, pp.24~40.

추억에 꿈에 어두운 지붕 위에  
죽음에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석탄은 묻어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몸부림  
더 큰 사랑을 꿈꾸는 마음 위에  
석탄은 묻어 있다  
갔다 오마 하고 언제나처럼  
한 마디 무뚝뚝한 말을 남긴 채  
그이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이 되어  
탄광에서 죽어 온 남편의  
피묻은 작업복과  
마을의 키 큰 사철나무 옆에도  
석탄은 묻어 있다  
간다 울지 마라  
시래기가 걸린 웅달진 벽  
마을로 가는 신작로  
바람을 맞으며 떠나는 이웃들의  
무겁고 정처없는 발길에  
뻘뻘한 손바닥에  
눈물 어린 눈에  
펼려이는 치마에 바람에  
석탄은 묻어 있다  
봄이 오면 푸르러질 저 보리밭  
보리밭의 흰 눈에도  
어린 자식들의 피섞인 기침에도  
뺨에 얼룩진 눈물에도  
석탄은 묻어 있다  
가마 어디든 못 가랴

저 캄캄한 석탄더미 너머  
가도 가도 척박한 이 땅  
가다가 쓰러져 석탄이 되더라도  
이것들 얼굴에 더 이상은  
석탄을 묻힐 수 없다  
울지 마라 간다  
가다가 쓰러져 석탄이 되더라도  
이것들 어린 꿈에 더는  
석탄을 묻힐 수 없다

—「석탄」 전문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 첫 번째로 실린 작품이다. 시인이 시집을 내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시를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시집이 가지는 주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석탄」을 첫 작품으로 선정한 것은 시인 나름대로 서시에 해당하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한 시집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정희성이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후기에 “역사의 발전을 믿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룩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문학과 행동을 뒤늦게나마 자각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sup>3)</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석탄」은 탄광촌의 비참한 현실을 시대적 양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룩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며 “가다가 쓰러져 석탄이 되더라도/ 이것들 어린 꿈에 더는/ 석탄을 묻힐 수 없다”고 눈물을 삼키며 절박한 현실 속에서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70년대 소외된 민중의 고통과 슬픔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집 『저문 강에 삼을 씻고』를 독해할 수 있다.

3) 정희성, 「후기」,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작과비평사, 1978.

어머니, 기억하세요?  
그 슬픈 사슴의 이야기를.  
그때 전 일곱이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창경원을 구경하던 그날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우리도 서울서 살자고  
때를 쓰다 맞던 일도  
어머니, 저는 다 알아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속도 없이 저는 울기만 했고  
그리고 모든 걸 잊었었지요  
곰의 얼굴도 사자의 얼굴도  
가없는 사슴의 애기도 잊었었지요  
어머니도 저도 농사 일에 바빠  
다 잊었지요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됐을까요?  
기억하세요? 그때 전 일곱이었어요

어머니, 모든 것이 달라졌네요  
저 새도 원숭이도  
새끼를 낳다 죽었다는 검은 곰도  
우리가 보던 것이 아니예요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됐을까요?  
제 나이 벌써 열 아홉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고향을 떠났지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하셨고  
그 정신에도 오빠를 가르친답시고

논발은 다 팔아 날리고  
어머니, 그런데 오빠는 여기 없어요  
월남이라는 나라에서 죽었어요  
오빠가 왜 남의 나라 싸움터에서  
죽어야 했는지 저는 몰라요  
분이야, 오빠 나갈 때까지만  
아버님 모시고 고생하거라 하던  
그 편지가 마지막일 줄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남의 집 식모살이를 가야 했는지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됐을까요?  
「나는 돌을 먹을 수 없어요」하던  
그 사슴을, 기억하세요? 전 일곱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니  
그 빨이 잘린 꽃사슴을.  
누가 저 빨을 잘랐을까 하고  
저는 물었지요  
그때 전 일곱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변했어요  
사슴도 꿈도 옛날 것은 아니고  
벌써 저는 열 아홉인걸요  
이 손으로 비단을 짜는걸요  
그러나 어머니, 제 손을 보면  
그 옛날 어머니의 거친 손이 생각나요  
논바닥처럼 갈라진 어머니의 손이.  
왜 왈칵 눈물이 솟는지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노엽고 분했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뒤  
실컷 울고 싶어서 여길 왔어요  
저 짐승들은 제 맘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먹을 만큼은 받아야  
일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예요  
공장측과 싸웠어요  
며칠이고 며칠이고 굶으면서  
쓰러지고 또 일어서 싸우면서.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당했어요  
이거나 먹으라고, 배고프면 이거나 먹으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똥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끌려갔지요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실 거예요 함께 일하던 순이  
산너머 먹골에 살던 그애를.  
미쳐버렸어요 그애가 미쳐버렸어요  
모든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누가 그 사슴의 뿔을 잘라 갔을까요?  
기억하세요? 전 일곱이었어요  
사슴도 옛 사슴은 아니고  
사람도 옛 사람이 아니예요  
짐승 우리 앞에는 팻말이 붙어 있지요  
「우리는 돌을 먹지 않아요」라고,  
누군가 저 가엾은 사슴에게  
돌을 던지나 봐요 어머니  
그것을 먹으라고.

모든 것이 옛날과 달라졌어요  
이대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니  
그때 전 일곱이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일곱은 아니예요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되었을까요」 일부

이 시의 화자는 일곱 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경원을 구경했다. 열아홉 살이 된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창경원을 찾았다. 어머니와 사슴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창경원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은 많은 불행을 겪었다.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따라서 이 시는 슬픈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창경원이 동물원이 된 것은 식민지의 슬픈 역사다. 이때 동물원은 우리 삶의 슬픈 현장을 표상한다. 그곳에 갇힌 동물들 역시 슬픈 운명을 타고났다. 평생을 우리에게 갇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슴'은 그 중에서 가장 여리고 순수한 대상이다. 그러기에 화자의 자화상이며 약자로서 살아야 하는 서민의 삶을 상징한다.

딸은 어머니의 고단한 노동의 숙명을 이어가야만 하는 처지에 다다른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은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다. 결국 이 작품은 통한의 과정을 겪은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며 한을 푸는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로 살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현실인식과 결코 어린 아이가 아닌 한 명의 노동자로의 삶을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이루는 순간을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쇠를 친다  
이 망치로 못을 치고 바위를 치고  
밤새도록 불에 달군 쇠를 친다  
실한 팔뚝 하나로 땀투성이 온몸으로



이 세상 아리고 쓰린 담금질 받으며  
 우그러진 쇠를 치던 용철이  
 (……)  
 용철이 생각을 하며 쇠를 친다  
 나 혼자 남아서  
 고향 멀리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며  
 식모살이 떠났다는 누이를 생각하며  
 팔려가던 소를 생각하며  
 추운 만주벌에서 죽었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불에 달군 쇠를 친다

—「쇠를 치면서」 일부

이 작품에서 쇠를 치는 사람은 둘이다. 바로 ‘용철이’와 ‘나’이다. 용철이는 밀린 월급도 못 받고 팔 하나를 잃고 사랑하는 ‘분이’도 잃고 쇠를 치다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아 쇠를 친다. 이때 나는 용철이와 같이 달군 쇠를 치면서 동일시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즉 보편적 의미망으로는 나와 용철이가 함께 가진 것 없이 빼앗기기만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는 용철이와 달리 현실적 자각을 하고 있다. 즉 ‘이 망치로 내리칠 것은 쇠가 아니고’, ‘떡을 칠 놈의 세상’이라는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냉철한 현실인식과 저항의 몸짓은 「새벽이 오기까지는」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나는 머리를 감아야 한다  
 한탄강 청청한 얼음을 꺼서  
 얼음 밑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새벽이 오기 전엔  
 얼음보다 서늘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새벽이 오기까지는」 일부

이상의 시들은 다소 격양된 어조와 감정의 직접적 분출이 드러나는 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적 어조와 정조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정회성 특유의 절제된 감정과 차분한 어조로 선회하는 작품이 바로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이다. 이 시는 정회성의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도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전문

이 시는 저물어 가는 강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흐르는 강물을 관조하는 한 노동자의 야원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가장 빛나는 리얼리즘의 성취<sup>4)</sup>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산업화 시대 새롭게 부상한 노동자의 문제를 자신의 감정을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그들의 처지에

4) 윤영천, 「리얼리즘의 시적 성취-정회성의 시」, 『서정적 진실과 시의 힘』, 창작과비평사, 2002, p.277.

철저히 밀착해서 궁핍한 삶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흐르는 것이 물 뿐이라’, ‘나는 돌아갈 뿐이다’와 같이 ‘~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체념적 어조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우울하고 체념적 말투는 해질녘 분위기와 조용하며 한 노동자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도 저와 같아서’에서 화자를 ‘우리’로 복수화한 것은 이 시가 소외당한 농민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집단적 심정을 대변<sup>5)</sup>하는 시라는 보편성을 확보하게 한다. 반면 그의 시가 당대적 의미를 지나치게 획득한 나머지 시적 신념체계를 지나치게 확립했고 여기에서 기인된 상투적인 반복성은 80년대에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sup>6)</sup>

이 시의 강은 섬진강의 맑고 깨끗한 샛강이 아니다. 도심의 한복판을 흐르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흐르는 강이다. 악취가 풍기고 밑바닥에서부터 썩어 가는 강이다. 슬픔을 퍼다 버리는 강은 당연 슬픔의 강이다. 노동자의 삶의 고달픔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강물이다. 이런 강물에 뜬 달의 이미지도 희망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삶을 비추는 슬픈 달이다.

「저문 강에 삼을 씻고」는 막노동자의 초상화이다. 때문에 민중시의 표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막노동자로 그려진 것은 사실 보편적 인간의 구상(具象)에 지나지 않는다.<sup>7)</sup> 실제로 ‘저문 강에 삼을 씻는’ 노동자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모습은 시인의 시적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이 시대의 노동자의 한 단면이며 또한 이 노동자의 모습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의 변두리 삶을 허구적 리얼리즘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신경림은 민중시의 전형이 아닌 “한국 시가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모범시”<sup>8)</sup>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자의 모습은 ‘용철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나이가 든 용철이의 모습으로 읽히는 것은 왜일까?

5) 송희복, 『한국 서정시의 이해』, 예하, 1993, p.264.

6) 위의 책, p.265.

7)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 2』, 우리교육, 2002, p.32.

8) 위의 책, p.32.

질네야 질네야  
비단옷일랑 남에게 주고  
네 몸 여위어 어디로 가나

질네야 질네야  
사랑도 꿈도 잃어버리고  
네 몸 여위어 비단이 되나

질네야 질네야  
바단옷일랑 남에게 주고  
여윈 몸 서러워 정처 없어라

—「질네야」 전문

‘질네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하는 작품이다. ‘비단옷일랑 남에게 주고/ 여윈 몸 서러워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는 ‘질네’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의문은 계속된다. ‘사랑과 꿈도 잃어버리고’ ‘서러워 정처 없’이 가는 모습에는 분명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린 상처가 깊다. 누군가는 질네에게서 순결을 빼앗고 누군가는 질네에게서 임금과 노동을 착취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과 꿈마저 빼앗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민중이란 말보다 ‘질네’라는 말이 가슴을 더 세차게 두드리는 힘이 있다. ‘네 몸 여위어 비단이 되나’는 술한 나열이나 진술보다 응축된 서정과 여운을 만들어 준다.

사회성과 서정성이 긴요하게 뒤엉킨 작품이다. 이런 질네의 모습은 다음 작품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그애가  
파업을 선동하다 끌려갔다 하고  
또 말에는, 실컷 배나 채운다고  
무슨 설농탕집 식모로 갔다 하고

자갈치시장 어디 술집에서  
 창녀가 되어 몸을 팔고 있다거니  
 예비 모를 새끼를 배어 선창에서  
 비를 맞고 섰는 걸 보았다거니 하고  
 끝내는 바다에 몸을 던져  
 모든 걸 깨끗이 끝내 버렸다고도 하고  
 그러길 잘했다고도 하고

들리는 말로는 또 아직도 그 애가 괴정동 바닥  
 어느 구석에 실밥처럼 내려앉아  
 밤마다 저 해삿병 앓는 파도소리로  
 뒤척이고 있을 거라 하고  
 그러다 물거품처럼 꺼져 버릴 거라고도 하지만  
 어떤 이는 또, 그애가 언젠가는  
 기어코 저 힘센 바다를 뒤집쓰고  
 당당히 당당히 걸어나올 거라고도 하고

—「들리는 말로는」 일부

질네의 꿈은 비단옷을 가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돈을 벌어 좋은 옷을 한번  
 사 입어보고 싶었던 질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상경하면서  
 꿈꾸었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결국 이 시에서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리라는  
 의지와 당당히 살아보리라는 다짐을 하며 지금쯤 어디에선가 굳건히 살아갈  
 것 같은 질네의 모습이 선연한 작품이다. 우리 민중의 소박하고 순수한 열정  
 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 3. 현실의 견고함을 녹이는 따스한 시선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전문

시적 현실의 간고함과 판으로 그윽한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자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이웃에 대해 한없는 연민과 동정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은밀하게 토로한다.<sup>9)</sup> 시인 정희성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후기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외친다. 나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지 않고 당신들의 당신들의 당신들의 가슴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시가 현실 참여적 성격을 기저로 하면서 민중의 삶의 진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런 시인의 따스한 눈길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에서처럼 대상을 향한 그리움으로 표상된다. 「그

9) 윤영천, 앞의 책, p.278.

리움 가는 길 어디메쯤, 「눈 덮인 산길에서」, 「친구에게」, 「우리들의 그리움은」 등도 이와 같은 성격의 시로 볼 수 있다. 그의 이런 시정(時情)이 잘 녹아 있는 작품이 또한 「청명」이다.

황하도 맑아진다는 청명날  
강머리에 나가 술을 마신다  
봄도 오면 무엇하리  
온 나라 저무느니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  
머리칼 날려 강변에 서면  
저물어 깊어가는 강물 위에  
아련하여라 술취한 눈에도  
물 머금어 일렁이는 불빛

—「청명」 전문

위의 시는 1979년에 지은 시로, 이 시기는 유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때이며 언제 밝은 세상이 올지 모르는 암담하고 답답한 시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다. 연의 구분이 없이 이어지는 시이지만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2·2·2·3형으로 나뉘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청명'은 절기상 양력 4월 5~6일에 해당한다. 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소재인 '청명', 하지만 이 시의 분위기는 결코 밝지 못하다. 그것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는 압축과 절제의 시상 전개가 돋보인다. 그러면서 깊은 시대적 의미와 시적 이미지가 풍부하게 깔려 있다. 빠른 시상 전개로 어둡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빠져들지도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시대를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물 머금어 일렁이는 불빛'이란 것은 그의 시정신이 시대적 대절의지와 무관하지 않으며 민중시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의 시가 보여주는 단아한 표현과 세련된 언어구사는 그의 시가 선비시 또는 지식인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같고 닮은 시어의 구사가 그의 시를 빛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한시의 4단 구성에 입각하여 시를 창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sup>10)</sup> 이런 점들이 그의 시가 짧으면서도 세련되고 절제된 듯하면서 강한 내파음을 가지는 “작은 목소리의 큰 울림”으로 독자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다음 작품에서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온다.

나는 웬지 잘 빚어진 향아리보다  
좀 실수를 한 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내는 따라와 용기를 고르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몸소 질그릇을 굽는다는  
용기점 주인의 모습에도  
어딘가 좀 빈 데가 있어  
그것이 그렇게 넉넉해 보였다  
내가 골라놓은 질그릇을 보고  
아내는 곧잘 화를 내지만  
뒷전을 돌아보면  
그가 그냥 투박하게 웃고 섰다  
가끔 생각해보곤 하는데  
나는 어딘가 좀 모자라는 놈인가 싶다  
질그릇 하나를 고르는 데도  
실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한 것을 택하니

—「용기전에서」 전문

‘좀 실수한 듯한’ 용기를 마음에 두고 ‘넉넉함’을 느끼며 투박하게 웃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견고하고 약삭빠른 현실에 대

---

10) 신경림, 앞의 책, pp.29~30. 참고.



한 넉넉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딘가 좀 모자라는 놈인가 싶다’는 것은 자기 고백적 성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애착을 통해 약자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무한 경쟁의 정글에 우리를 몰아넣는 현대 사회의 비정함을 생각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런 따스한 시선이 아니겠는가 싶다.

#### 4. 세상과의 새로운 소통방법

말이 곧 절이라는 뜻일까  
 말쑥으로 절을 짓는다는 뜻일까  
 지금까지 시를 써오면서 시가 무엇인지  
 시로써 무엇을 이룰지  
 깊이 생각해볼 틈도 없이  
 헤매어 여기까지 왔다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엔  
 절 없이 절터만 남아 있고  
 강원도 어성전 명주사에는  
 절은 있어도 시는 보이지 않았다  
 한여름 뜨락에 발돋움한 상사화  
 꽃대궁만 있고 잎은 보이지 않았다  
 한줄기에 나서도  
 잎이 꽃을 만나지 못하고  
 꽃이 잎을 만나지 못한다는 상사화  
 아마도 시는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인 게라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마음인 게라고  
 끝없이 저갓거리 걷고 있을 우바이  
 그 고운 사람을 생각했다.

—「시를 찾아서」 전문

그의 네 번째 시집의 표제시가 되는 작품이다. 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회의를 통해 자신의 길을 다시 밝혀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마음의 곡진함이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흐르고 있다. “그 고운 사람을 생각한다”는 마지막 표현은 내 마음에 담고 싶은 간절한 시의 마음이 아닐까?

시인의 시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시의 매혹은 상사화를 통해 연상되는 어느 이름 없는 우바이의 모습에 있다.

정말로 내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미움의 언어에 길들어왔다.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에만 시가 씌어졌고 증오의 대상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만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나는 나의 말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가능하다면 나 자신으로부터도 해방됐으면 싶다.<sup>11)</sup>

시인 자신이 「후기」에 밝히고 있는 이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마음’은 끝없이 새롭게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며 지향점이라고 할 것이다. 시인 정희성의 시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신적 지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말로부터의 해방’이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은 어쩌면 동양적 세계관인 ‘선(禪)’의 경지나 노자의 사상과도 그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표 안 된 시 두 편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나는 부자다  
부자로 살고 싶어서  
발표도 안 한다  
시 두편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느 부자 부럽지 않지만  
시를 털어버리고 나면

11) 정희성, 「시인의 말-시를 찾아나서며」, 『시를 찾아서』, 2001, pp.82~83.

거지가 될 게 뻔하니  
 잡지사에서 청탁이 와도 안 주고  
 차라리 시를 가슴에 묻는다  
 거지는 나의 생리에 맞지 않으므로  
 나도 좀 잘 살고 싶으므로

—「차라리 시를 가슴에 묻는다」 전문

‘시 두 편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시인의 근본 자세는 세상의 범람이나 과잉에 대한 내적 저항이 되기도 한다. 시가 범람하고 있는 시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냉철한 반성 위에서 시를 써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그의 시작 태도가 그대로 표현된 작품이다. 이에 대해 시인으로서 게으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폄하는 어울리지 않을 성 싶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그의 겸손함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한다”처럼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시를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면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진지한 고백과 겸손한 태도로 쉽게 시를 쓰고 이를 발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의 시가 무겁거나 쉽게 읽혀지는 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의 시는 간결하면서도 활달한 시상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날 기울고 소소리바람 불어 구름 엉키며  
 천둥 번개 비바람 몰아쳐 천지를 휩쓸어오는데  
 앞산 키 큰 미루나무 숲이 환호작약  
 미친 듯 몸 뒤채며 운우(雲雨)의 정 나누고 있다

나도 발가벗고 벼락 맞으러 달려나가고 싶다

—「소나기」 전문

한 여름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의 활기찬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

다. 더 없이 유쾌하고 재미있게 읽히는 시다. 이런 활달함이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에서 전혀 외설스럽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 2연으로 구분되어 있는 “나도 발가벗고 벼락 맞으러 달려 나가고 싶다”에서 ‘벼락’의 의미는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sup>12)</sup> 여름 한낮의 가벼운 정회를 적은 시라고 생각하기 쉬운 작품에 철학적 사색의 깊이를 부여하고 있는 대목이며 이런 의미에서 정희성의 후기 시가 원숙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들은 적이 있는가  
달이 숨쉬는 소리  
애월\* 밤바다에 가서  
나는 보았네  
들숨 날숨 넘실대며  
가슴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물 미는 소리  
물 썬는 소리  
오오 그대는 머언 어느 하늘가에서  
이렇게 내 마음 출렁이게 하나

\* 복제주군에 있는 마을 이름.

—「애월(涯月)」 전문

정희성 시인이 보여주는 ‘물’의 이미지가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서는 ‘강’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면 이 시는 ‘바다’라는 시적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월’이란 시적 공간은 강물이 다다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시인에게 달이 숨 쉬는 밤바다는 본질적 사유의 세계이며 근원적 그리움의 공간이다. 구체화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들숨 날숨 넘실대는 가슴 차오르는 그

12) ‘금강경’의 원어의 뜻은 ‘벼락경’이라고 한다. (김용옥, 『금강경강해』, 통나무, 1999, 참고.

리움'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시가 개인적 사유와 철학적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며 날카로운 인식의 날을 베풀고 있음을 다음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  
저항은 영원히 우리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진 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저항은 어떤 이들에겐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열간이들은 저항마저 빼앗겼다  
세상은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는 벼들도 말수가 적어졌고  
개들이 뼈다귀를 물고 나무 그늘로 사라진  
뜨거운 여름 낮의 한때처럼  
세상은 한결 고요해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전문

그의 최근작으로 세상을 보는 심경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읽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진다. 시대는 시대를 계승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배반하면서 이어진다는 말이 생각난다. 저항이 무력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이다.

이 시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소회를 적은 서사시이자 정치시이다. 대체로 서사시는 격한 노여움이나 증오심을 환기하도록 구상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덕목이다. 그렇다고 화자의 마음이 지금 순평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무 그늘로 사라진 개들이란 대목에서 시사되고 있는 경멸감을 통해 드러난다.<sup>13)</sup>

과거의 저항은 세속화되고 오늘날의 저항은 그 본질적 의미가 변질된 채 화

석화 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지난날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대하여 되새기도록 만들어준다. 시인의 현실적 자아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동시대의 동일 체험을 한 독자의 가슴에 보편적 울림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현대사의 질곡과 그 이후의 상실과 실패에 대한 검증의 글인 것이다.

## 5. 맺음말

시가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는 문학임에 틀림없다면 정희성이 말을 지극히 사랑하고 시를 지극히 사랑한 시인이라 할 수 있다. “시(글)가 곧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정희성의 시가 일면 유약한 듯하지만 내성이 있고 단아하면서 힘이 있는 것은 그의 성품과도 닮아있다.

신경림에 의하면 정희성의 시는 그의 사람됨처럼 단단하고 찬찬하며 간간하고 곧고 굳다고 한다. 그는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후기에서 『답청』의 시세계를 부정하고 싶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시세계가 크게 변모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의 시세계는 일상적인 깨달음의 중요성을 함축한다. 그만큼 그의 시는 고전적 의미의 명상시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민중적 삶을 옹골게 구축하고자 한다.<sup>14)</sup>

그의 시가 보여주는 매서움은 사실 이런 내적 충일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것 속에서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며 타인의 존재를 나와 다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지순하고 따듯하고 고운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새삼 하지 않더라도 그의 시는 극도로 정제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진실함에 호소하는 큰 울림을 주고 그 감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삶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13) 유종호, 『시읽기의 방법』, 삶과꿈, 2005, pp.235~237.

14) 김혜니, 『한국 현대시문학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p.282.

## 참고문헌

- 김용옥, 『금강경강해』, 통나무, 1999.
- 김혜니, 『한국 현대시문학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 2』, 우리교육, 2002.
- 송희복, 『한국 서정시의 이해』, 예하, 1993.
- 유종호, 『시읽기의 방법』, 삶과꿈, 2005.
- 윤영천, 「리얼리즘의 시적 성취-정희성의 시」, 『서정적 진실과 시의 힘』, 창작과비평사, 2002.
- 정희상, 「시인의 말-시를 찾아 나서며」, 『시를 찾아서』, 2001.
- 정희성, 「후기」,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작과비평사, 1978.
- 최동호, 『한국 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출판부, 2004.